

# 통일신보

무소속대변지

[별호]

주제 101  
(2012). 4  
30  
월요일  
음력 윤3.1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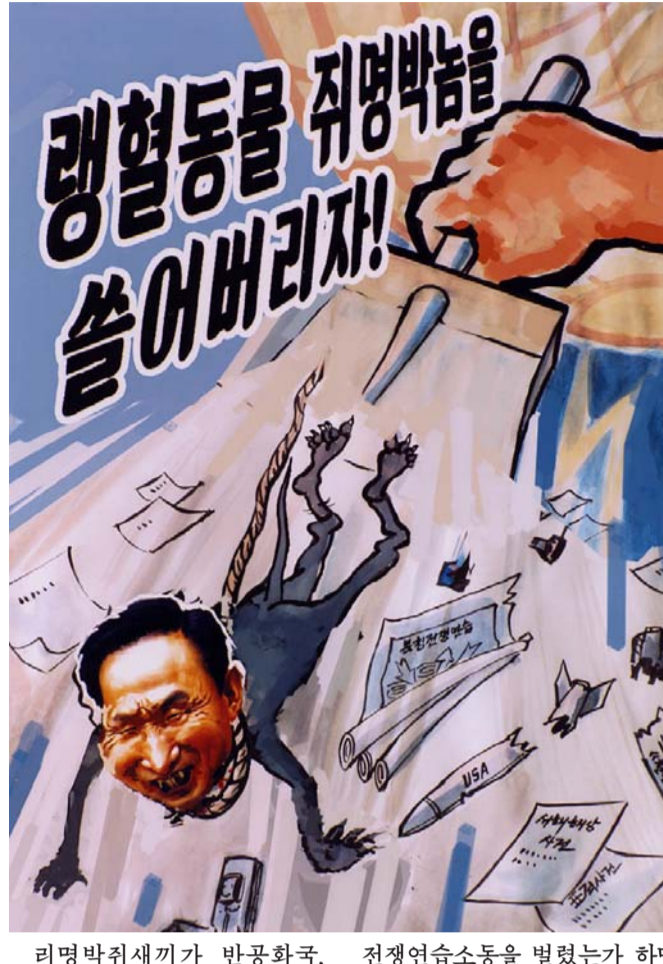
6.15 공동선언의 기치아래  
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 
자주통일을 앞당기자!



**두동강은 성차지 않아**  
역센 무쇠주먹이 리명박  
취새끼를 거머쥐고 순간에  
찢어발린다.  
한길이나 늘어나 끊어  
저나간 생쥐새끼의 목대  
에서 우지직하는 소리가  
금시 들려오는 것만  
같다.  
취명박의 주둥이에서 피  
물은 혀때기가 속시원히 뿜  
혀지고 더러운 침방울까지  
뿜겨난다.  
민족의 존엄을 깎아내리  
기 위해 실재없는 쓸라닥질  
과 악담질에 미쳐돌아가던  
취새끼.  
두동강내는 것만으로도 성  
차지 않다.



**《엠병할 비》 쥐새끼는 이렇게!**  
썩은 악취 풍기는 주둥이  
를 벌리고 짹짹대는 졸보놈  
MB취새끼.  
인간인체 흉내를 내느라  
모지름 써보았으나 더럽기  
짝이 없는 털부숭이 네발과  
발톱, 꼬리지 등 벌거벗은  
온 몸통에서 엠병을 일으키  
는 온갖 병균들이 와르르 쏠  
어나올듯 하다.  
남조선인민들은 이미 혐오  
스러운 MB취새끼에게 《엠  
비》(《엠병할 비》)라는 끔  
찍한 별명을 달아주었다.  
인간의 생명과 인류를 위협  
하는 엠병을 퍼뜨리는 쥐새끼  
는 이렇듯 산간오지에 끌어들  
어 놓고 돌탕쳐죽여야 마땅하다.



**랭혈동물 쓸어버리자**  
리명박  
취새끼.  
상판에는 비명이 어리고 목  
에는 교수형선고를 받은듯  
굵은 바줄이 매달려있다. 시  
대와 력사, 민족이 내린 준  
엄한 심판이다.  
외세와 야합하여 해마다 북침  
전쟁연습소동을 벌렸는가 하면  
서해해상사건, 《천안》호사건  
등을 날조하다 못해 지어는 우  
리의 최고존엄까지 마구 건드  
리고있다.



**피발린 혀때 때문에...**  
취창에 목대가 짓이겨져 피  
발린 혀때기가 한발이나 나온  
리명박취새끼의 상통.  
게거품도 부족해 피를 물  
고 6.15통일시대를 동강내  
고 대결만을 부르짖으며 짹  
짹대던 쥐명박새끼가 만신창  
이로 된 모양이 참으로 가  
판이다.  
고통에 못 견디겠으니 차라  
리 빨리 숨을 거두게 해주었  
으면 하건만 민족의 결산은  
그렇게 쉽게 끝날수는 없다!  
무쇠주먹이 잡아당긴 취창  
에 끼여 마지막 한방울의 피  
가 마를 때까지 매달려있다면  
과연 얼마만 한 시간과 날이  
흘러야 할지...



**총알이 아깝다. 총창으로**  
도 시원치 않다. 한중에도  
못드는 쥐새끼따위는 맨주  
먹으로 단숨에 때려죽여야  
한다.  
사람이 되기  
를 그만둔 취새끼, 2MB밖  
에 안되는 지능지수를 가진  
이 인간오작품이 감히 우리  
의 최고존엄까지 건드리며  
태양철 100동경축행사를 든  
으로 계산하려들었으니 참  
으로 가소롭다.  
인간으로, 조선민족으로  
살기에는 천벌을 받을 죄를  
너무도 많이  
저지른 쥐명박  
새끼는 때려잡는 것이 마땅  
하다.  
순간에 피를 토하며 남  
작해지니 랑칠나위조차 없  
구나.



**북망산 까마귀도 재촉한다**  
취명박의 목이 문명 끊어  
지는 순간이다.  
이렇게 큰 생쥐도 있는가,  
이것이 몇날은 뜯어먹어도  
될 것이라고 두 날개를 활짝  
편 북망산의 까마귀도 한시  
바삐 숨통을 끊어 도륙내달  
라 서둘러 재촉한다.  
《이름: 쥐명박, 학명: 쥐  
과에 생쥐속, 죄명: 만고대  
죄》라고 쓴 간판이 쥐명박  
의 가슴팍에서 피로 얼룩지  
고있다.  
그렇다. 조국과 민족앞에  
대죄악만을 저지른 쥐명박의  
지승길은 2중3중이다.



**취새끼소굴-청와대를 통채로!**  
취새끼들의 소굴인 청와  
대가 마른날에 날벼락을 맞  
았다.  
사대매국과 동족대결, 반  
통일책동에 미쳐날뛰다 못해  
감히 민족의 최고존엄까지  
모독한 천하무돈한 사탄의  
무리들의 본거지-청와대.  
어떻게말하든 그 하늘의  
태양에 대고 사대질을 했으  
니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.  
한강과 청와대의 시궁창  
에서 함께 오물을 뒤지던  
동료생쥐들과 그렇게도 아  
부굴중하였던 상전의 바래  
움을 못받고 외로이 저승길  
을 가야 하니 그 몰골 참으  
로 박살내야 한다.



리명박취새끼에 대한 화형식  
이다. 활활 타오르는 불길, 벅속  
까지 타드는 고열로 하여 짹짹소  
리도 못치는 쥐명박, 바야흐로  
재가 되어 혼적도 남기지 않을  
가슴부러운  
**취새끼화형식 장관이다**  
대의 오물  
순간이다.  
그렇다. 찢어죽이는 죽탕쳐  
죽이는 그 더러운 잔해물로 하  
여 이 땅, 이 산천이 오염될  
수 있다.  
하늘의 태양에 대고 감히  
사대질한 만고역적, 민족의  
최고존엄을 모독한 죄, 우리의  
섬스러운 태양절축분위기에  
찬물을 끼얹은 죄로 하여 화형  
을 당하는 쥐새끼무리들은 이  
미 깨끗이 청산되어야 할 시  
대의 오물  
이다.  
이 조선, 이 하늘아래 재가  
루마져 파묻히고 뿌러질 곳이  
없는 쥐박이이다.  
취새끼무리들의 재가루 왜  
나라와 저 멀리 태양건너 미국  
앞바다로 개개 흘러가라.



**취구멍에도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!!!**  
민족앞에 저지른 죄 두려  
워 허둥지둥 출혈량을 채 미  
천듯이 쥐구멍을 찾았으나  
서슬푸른 총창들이 쥐박이  
를 기다린다.  
죄 많은 이놈! 감히 어디에  
숨어보려고...



**흔적도 없이 죽탕내라**  
털부시시한 쥐명박의 더러  
운 몸통아래에 서리발총창들  
이 폭죽 꽃치고있다.  
온갖 악담질이 쏟아나오던  
리명박취새끼의 목줄기가 대  
번에 맞창나고 더러운 잔명  
을 간신히 부지해주던 심장  
도 이미 터졌다.  
천하에 게관한 쥐박이의 밑  
취명에서도 피가 쏟아진다.  
사대와 매국은 물론 온갖  
구린내나는짓만 골라해온 쥐  
박이에게 있어서 이것도 약  
파이다.  
복수의 세례가 이것으로 끝  
날것이라고는 오관하지 말라!  
취명박이를 형체도 없게  
같같이 죽탕쳐버리자는 것이  
바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복  
수일념이고 징벌목표이다.



**자동차에 끌리워 어디로**  
자동차에 달린 울가미에  
걸려 끌려가는 천하역적 리  
명박취새끼의 비참한 신세.  
취명박같은 탐방울과 교묘, 눈  
물을 뿌리며 살려달라고 두 다  
리를 버리고 짹짹 안전함을 쓰  
고있다. 그러나 징벌의 울가미  
는 점점 더 쏘여져만 든다.  
지옥의 굶는 기름가마도 이  
보다는 고통스럽지 않을듯.  
외세에 빌붙어 온 남덕남



그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  
는 리명박취새끼의 모가지에  
《특등주구》의 목사리가 채  
워져있다.  
상전이 같아  
준 생쥐이발사이로 《해무  
기포기》, 《개혁, 개방》,  
《변화》라고 쓰여진 긴 혀  
바닥이 징벌의 역세 손아귀  
에 잡혀 속시원하게 속 빠져  
나온다.  
더 으스스하게  
잠아당겨라!  
번식력이 특별히 강한 《미  
국산 쥐》죽음들의 생식기가  
지 뿜어져나오게!